

목포시, 걷기좋은 도시 환경조성에 집중

목포시가 걷기좋은 도시 환경조성과 걷기 도전 행사를 통해 시민건강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하면서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걷기는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건강에도 효과가 크다. 특히, 맨발로 걷는 것은 만성 염증 예방 치료, 비만 예방, 체질 개선, 피부미용, 신경통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목포시는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시민의 건강증진, 숲 체험과 휴식을 위해 도심생활권 산림과 공원지역에 양울산 '맨발로 청춘길'과 초당산 '오감만족 맨발길'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맨발 활동길은 지난 겨울철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이런 맨발 길은 주로 신도심권에

위치해 원도심권 주민들이 이용을 위해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맨발 활동길을 조성하고 세족장과 음수대 신발 보관함, 휴게 의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동목포웰빙공원 일원에 황토맨발길을 조성했다. 동목포웰빙공원은 목포시 허파 역할을 하는 대표공원으로 맨발길은 길이 750m, 폭 1.5m로 조성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힐링의 공간이 돼주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유달산, 삼학도, 양울산 산림욕장, 입암산 등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하는 등 권역별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족장과 음수대, 신발 보관함, 휴게의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목포시가 걷기좋은 도시 환경조성과 걷기 도전 행사를 통해 시민건강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하면서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목포시 제공

신안 노거수 회화전 개최

신안군 자은도에 있는 둔장마을 미술관에서 신은미(한국화)의 그림 작품 23점과 강제윤(시인)의 노거수 이야기로 표현하는 '늙어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존재-신안의 노거수' 전시가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린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은 섬마다의 특징을 살리고 각기 다른 생태를 강제윤 시인의 글과 신은미 작가의 그림으로 잘 나타냈다.

노거수는 역사적, 학술 가치가 커서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노거수나 희귀목(稀貴木) 중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국 1만 4천여 그루의 보호수가 있고, 이중 신안군의 보호수는 161그루다.

이번 전시의 각별한 의미는 섬 지역 노거수만을 찾아 글을 쓰고, 섬의 노거수만을 주제로 전시가 열린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섬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낸 노거수의 이야기로 따뜻하게 담아낸 강제윤 시인과 신은미 작가 작품의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장흥근 기자

강진군 마량농공단지 환경개선 국비 확보

강진군은 최근 2024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1988년 준공해 운영중인 노후 농공단지인 마량농공단지에 국·도비 7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마량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개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이 있다. 강진군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 8월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시설과 환경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마량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방

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청년문화센터는 이미 선정된 해양수산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 지역의 주거공간과 문화·여가 시설 등을 갖춘 청년 친화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립 구상안은 1, 2층에 치유실, 청춘카페, 체력단련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배치하고 3층에는 주거형 원룸 12실과 쉼터를 배치했다. 특히, 주거형 원룸을 신설했을 경우 타지역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강진군에서 진행중인 미 프로젝트와 연계해 농공단지 내 도로정비와 조형물 설치, 녹지공간 확충, 야간조명 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박종욱 기자

함평, 미용업 영업자 정기 위생·친절 교육

함평군이 최근 제26회 함평나비 대축제 개최를 앞두고 함평군소상공인연합회 교육장에서 '2024년 미용업 영업자 정기 위생·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함평군지부(지부장 최영아)가 주관하고 함평군이 후원한 이날 교육에는 미용업 영업주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미용업 위생관리의

중요성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중위생관리법 해설 ▲축제 대비 친절·위생 교육 ▲미용기술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최영아 지부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미용문화의 개선과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도와 주신 모든 미용업 회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미용업소의 청결과 친

절한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천하자"고 다짐했다.

이상의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용업 발전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한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함평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오는 26일부터 나비대축제로 많은 외부인들이 함평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절한 미소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함평의 위상을 드높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문수 기자

영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인 모집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9월2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할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를 모집한다.

영암군은 올해 1월 법무부의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250명,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무제한으로 모집할 자격을 얻었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에 선정되려면 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을 포함해 영암군 거주·취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2년 이상 영암군 거주, 가족 동반 영암군 이주 등이 조건이다.

영암군은 미취업 지역우수인재를 지역 주요 산업인 조선업 기업에 취

업하도록 연결하고,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인, 영암군 또는 전남대불산 학용합원에 관련 서류를 낸 뒤, 전라남도의 추천서를 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이문수 기자

무안군, 출산 준비 교실 성료

무안군(군수 김산)은 남양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해피마미 출산 준비 교실 프로그램을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양·오룡 지역 16주 이상의 임신부 20명을 대상으로 임신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임신부터 산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난 3월 총 8회에 걸쳐 진행했다.

교육은 △임신부 출산 및 산후과정 △모유 수유 및 유방관리 △영양 교실 △아기용품 만들기 △신생아 돌보기 △임신부 요가 △영유아 정서발달 △산후 우울증 관리로 출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영유아 정서발달은 엄마와 아기의 애착 유형의 특징과 애착 강화 육아법에 대한 강의로 임신부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고민재 기자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발언 무안군민 버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즉각 사과하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 무안군 의회 · 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